

(사)부암아트센터-상명대학교 국제예술문화교육연구소 업무협약(MOU) 체결

학술·문화예술·공공 분야 협력 확대... 사제동행 프로그램과 Young Artist 공연 공동 추진

(사)부암아트센터와 상명대학교 국제예술문화교육연구소는 학술·문화예술 및 공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학술·문화예술·공공 분야 전반에서 공동 연구와 교육, 공연 및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술 포럼·세미나·강연 등 공동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 및 공공 분야 공동 연구와 기획 ▲연구성과 공유 및 학술 교류 ▲전문가·연구자·예술가 간 인적 교류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및 성과 확산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동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과 문화예술 현장을 연결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여 학생들이 공연기획, 문화예술교육, 예술경영 및 공연 제작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Young Artist 공연을 연간 4회 이내 공동 기획·운영하여 청년 예술인들에게 창작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연예술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와 교육, 공연예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부암아트센터 정유진 대표는 현대무용을 전공했으며, 무용을 중심으로 음악, 미술, 연극,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융합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있다. 정 대표는 "문화예술 현장과 대학의 연구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교육과 창작, 공연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며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폭넓은 예술적 경험을 쌓고 미래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김지현 학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문화예술 현장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현장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 연구와 공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예술교육과 학술 연구, 공연예술, 예술경영, 지역사회 문화 사업을 연계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미래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

학술·문화예술·공공 분야 공동 협력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사제동행 프로그램 공동 추진
Young Artist 공연 연간 4회 이내 공동 기획 및 운영
전문가·연구자·예술가 네트워크 구축
공연·전시·포럼·세미나 등 공동 프로젝트 추진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 및 사회공헌 사업 협력

이번 업무협약은 대학의 학문적 연구 역량과 문화예술 현장의 실무 경험을 연계하여 교육, 연구, 창작, 공연이 선순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예술인에게는 지속적인 창작 발표 무대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